

판다는 데탕트 시대 열었고 고양이는 대항해 시대 열었다



“사향소는 북극늑대가 나타나도 새끼를 지키기 위해 무섭지만 도망가지 않고 스크램을 짠다. 사향소의 얼굴에는 북극늑대의 이빨 자국이 깊이 생기고, 사방은 사향소의 핏방울로 붉게 물들지만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어른이라면 희생과 용기라는 덕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본문 중에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동물 인문학

이강원 지음

동물칼럼인 ‘동물만사’를 2년간 ‘신동아’에 게재했으며, 지금은 반려동물 매거진 ‘노트펫’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이번 책은 ‘신동아’에 연재한 글을 정리하고 다듬은 결과물이다.



저자에 따르면 동물은 인류 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인류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는 노동력과 단백질을 공급했으며 소가 죽은 산업적으로 활용됐다. 개는 오랫동안 사냥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예민한 후각과 빠른 발로 사냥 성공률을 높였다. 아울러 개가 있었기에 축산업 또한 발달할 수 있었다.

대항해 시대를 여는데 도움을 준 동물은 고양이였다. 식량을 먹여치우고 전염병을 옮기는 쥐를 박멸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양이를 일컬어 ‘신이 인간에게 보내준 수호신’이라고 얘기한다.

판다는 20세기 외교사에 데탕트 시대를 열게 한 주인공이다. 1972년 마-중정상회담이 열렸을



케냐의 세렝게티국립공원에는 300만 마리에 달하는 포유동물이 살고 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자 무리.

〈인물과사상사〉

때 판다가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이 해외 동물원에 파견한 판다는 많은 관람객을 모았으며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시켰다.

‘사자도 토끼를 잡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격언이 생긴 건 토끼의 습성과 관련이 있다. 토끼는 적응 능력이 뛰어나 남극과 극소수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서식한다. 어디서든 생존이 가능하고 개체수도 풍부해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곤 한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재빠른 몸놀림으로 비밀 공간에 숨어버린다. 사자도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다 발휘한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낙타는 전장에서 적군을 격파하는 데 이용됐던 동물이다. 로마시대 크라수스는 국력이 커나가는 파르티아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 파르티아군은 크라수스군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러나 파르티아군은 낙타를 활용해 크라수스 원정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다. 낙타가 전략무기인 화살을 등에 지고 전쟁이 벌어진 사막으로 옮긴 덕분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 동물은 소다. 노동

력과 질 좋은 단백질,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우유가 모두 소에서 비롯됐다. 소파와 같이 질긴 가죽은 다른 동물의 가죽으로는 대체가 어렵다고 한다. 그 뿐인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보양식은 소뼈를 고아서 만든다.

저자는 “영화 ‘아바타’는 인간과 동물과 환경이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님을 알려준다. 이 영화가 명작인 것은 재미와 함께 감동을 전하기 때문이다”며 “인간과 동물은 영원히 지구에서 같이 살아야 할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인물과사상사·1만7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수영장 도서관

앨런 홀링허스트 지음, 전승희 옮김

때는 1983년. 대저의 보수당 정권이 압승을 거둘 것인지 몰락할 것인지 하등의 관심이 없이 25세인 윌리엄 백위스는 잘 나가는 청춘이다. 그는 전직 검찰총장 조부가 사준 런던의 아파트에서 부를 누리며 산다. 특정 직업도 없이 낮이면 수영과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며 밤이면 클럽에서 연애 상대를 물색한다.



지난 2004년 버커상을 수상한 ‘아름다운 선’으로 국내 독자들에게 알려진 작가 앨런 홀링허스트의 소설 ‘수영장 도서관’이 출간됐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남성 동성애자들의 적나라한 성애와 생활을 문학계 안팎으로 끌어들여 관심을 낳았다.

소설은 최상류층으로 아무 거리낌없이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젊은 귀족 윌리엄 백위스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윌리엄 백위스는 지난 시대 자기 사회의 민낯을 발견하며 탄탄하게 여겨온 자신의 발판을 허무는 과정을 경험한다.

마치 추리극 같은 놀라운 전개로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결렬한 로맨스와 쓰러진 상실이 더해진다. 예리한 시각과 섬세한 문장, 비틀린 유머 등이 결합돼 있어 청춘의 빛과 그늘을 그려내는 데 더없이 좋은 장치로 작용한다. 제국주의를 지나 신자유주의에 이르는 영국이 국내외적으로 저질렀던 아반의 폭거, 특권적 지위와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주인공이 접하는 현실세계는 소설의 역동적인 배경이 된다.

소설은 단순히 성소수자의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소수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이는 모습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사회와 인간 본래의 복잡성을 마주하게 한다. 겹겹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는 사회의 민낯과 일그러진 면모들은 오늘날의 혐오와 차별의 뿌리 등을 생각하게 한다.

〈창비·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중산층은 없다

하다스 바이스 지음, 문해림·고민지 옮김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학위를 따고 자격증을 따고 나아가 인맥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살게 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적 자본에 투자할수록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수록 자격증 가치가 떨어지고, 앞서기 위해서가 아닌 따라잡기 위한 투자에 빠지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스라엘 출신 인류학자 하다스 바이스는 투자를 강요받는 시대, 우리는 우리가 착취하는 구조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중산층을 이데올로기로 규정하는 이유다. 하다스 바이스가 펴낸 ‘중산층은 없다’는 ‘우리는 결코 중산층이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작금의 사회는 구조적으로 투자를 강요한다. 이러한 투자를 매개로 어느 정도 자산을 지닌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품는다. “주책이나 주식, 보험, 학원, 전문자격증, 그 밖의 유·무형의 재산에 투자하지만 그들의 자산 가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이를 매우기 위해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들 대다수는 자본에 투자하면서 자본의 몸집을 키워주는 데 기여한다. 물론 손실의 위험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이 위험성에 대해 자본주의는 합구하고 있으며 오로지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적 자본 논리에 따라 가족의 유대 관계가 어떻게 재형성되고 인적 자본의 과잉 투자와 축적 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산지니·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헤르만 헤세의 나무들

헤르만 헤세 지음, 안인희 옮김

“나무는 우리보다 오랜 삶을 지냈기에 긴 호흡으로 평온하게 긴 생각을 한다.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에도 나무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



헤르만 헤세의 나무와 삶에 대한 성찰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헤세는 “가장 위대한 도서관은 자연”이라고 말하며 나무를 평생의 벗이자 영혼의 쉼터로 여기고 살았다. ‘헤르만 헤세의 나무들’은 헤세가 생전에 나무와 삶에 대해 남겼던 21편의 시와 18편의 에세이를 한 권으로 엮은 책이다.

헤세는 1955년 한 독자의 편지에 이렇게 답했다. “신이 인도인이나 중국인을 그리스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합이 아니라 풍성함이지요. 그래서 나는 딱딱나무나 밤나무가 아니라 ‘나무’라는 말이 가장 좋습니다.”

글에서 그는 나무의 생명력에 경탄하다가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한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 한가운데에서 나무가 주는 느낌의 미학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나무로 표상할 수 있는 자연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갖는 다양성에 주목했다. 나무에 대한 그의 작품은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

윌리엄 미켈스는 세계의 산업화와 단조로움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다양성과 느낌을 귀하게 여기는 헤세의 정신이 우리를 삶의 원천으로 돌아가게 해주기에 나무에 대한 그의 작품이 오늘날 더욱 빛을 발한다고 말한다.

한편, 헤세가 느낀 나무의 다양한 목소리와 따뜻한 위로로 한수정 작가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삽화도 만날 수 있다.

〈창비·1만40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100억짜리 이커머스는 처음 1년에 완성된다

나 코치의 파는 기술

온라인 창업에 자격은 필요없지만 살아남는 데는 자격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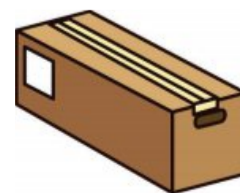
“창업 후 3년을 위한 이커머스 불패의 법칙!”



Selling



Skills



같은 걸 팔아도 10배 더 잘 파는 비결이 궁금하다면?
이커머스 사장님들의 고민 해결사 ‘나 코치’의 실전 코칭!

